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그리스도
한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로마 5,15



연중 제12주일



음성 지원

[입당송] 시편 28(27),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예레 20,10-13

[화답송] 시편 69(68),8-10,14와 17,33-35(© 14c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 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웁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2독서] 로마 5,12-15

[복음 환호송] 요한 15,26,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복음] 마태 10,26-33

[영성체송]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202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자세히 보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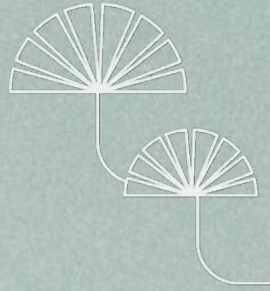
한반도의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움을 화해의 길로 돌리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사명 곧 평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는 어렵고 힘든 문제보다 단순하지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과 적대감이 더욱 낮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노력은 남북 사이에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귀한 존재들의 귀한 증언

글 | 윤석희 미카엘 신부(어농 성지 전담)



우리는 지금 6월 예수 성심 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었고, 그래서 성체성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처음 성체성사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가장 처음으로 성체가 주어진 미사는 언제일까요? 1795년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 북경에 파견된 밀사가 바로 어농 성지에서 현양하는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항 사바’ 순교 복자입니다.

오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어느날 교리책을 열심히 읽던 유허겸 아우구스티노와 정약전 안드레아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합니다. 사제가 아닌 일반 평신도가 미사를 집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법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허겸의 이 말에 다들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특히 이승훈 베드로는 “자신도 모른 채 큰 죄를 짓고 말았다.”며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마음 안에는 천국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교회법으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과 결단이 윤유일 바오로를 중국으로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윤유일 바오로는 ‘밀사’였습니다. 특히 ‘고난의 밀사’라 불립니다. 조상제사 문제와 가성직제도에 관해 당시 북경 교구장이셨던 구베아 주교님께 문의합니다. 참으로 더운 여름날 땀이 비 오듯 내려도 옷소매 안에 꿰매진 편지 때문에 소매를 단 한 번도 걷어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앞에 신앙인인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귀한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한다면 귀한 존재들의 귀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윤유일 바오로가 그러했고, 최인길 마티아가 그러하였고, 지항 사바가 그러했습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또한 그러한 증언을 하며 순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성심, 그 사랑을 안다고 증언하는 순교자들과 같은 신앙을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규와 침묵 하느님의 종 조치명 타대오 (1839~1868)

글 | 백정현 요셉 신부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총무)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는 1892년 1월 22일, 프랑스의 휴양지 니스에서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산책하던 그날 저녁의 풍경을, 시대를 대표하는 명화『절규』 속에 담아냅니다. 붉게 물들었던 평화로운 저녁 노을은 그의 그림 안에서 음습한 빛의 검푸른 바다와 섞여 핏빛으로 물결치고, 그를 앞서 가던 친구들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되어 어느새 뒤에서 유령처럼 다가옵니다. 온통 왜곡된 배경 속에서, 절망에 빠진 잿빛 얼굴의 뭉크는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서 그날 “자연을 꿰뚫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절규는 손으로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귓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소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결핍이 우리 안에서 외치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가난함에서 오는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 낼 수 있을까요. 그 불안을 잠재우고 영혼의 고요함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뱃고물에 머리를 기댄 채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풍량이 휘몰아치고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이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

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라고 소리칩니다. 내적 침묵 안에 머무르고 계신 주님께서서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내어 주십니다. 그분의 명령에 바다는 잠잠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은 우리를 물속으로 빠져들게 하지만, 존재의 결핍을 채우는 은총은 물 위를 걷게 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양반 출신 조치명 타대오는 본래 귀가 어두웠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죽산 용촌으로 이주해 살던 그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풀려났고, 1868년 7월 죽산 포교에게 아내 김 우르시치나와 함께 다시 체포되어 심문을 받게 됩니다. 동료 신자와 성물이 있는 곳을 대라는 포교의 으름장에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형벌도 그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 김 우르시치나는 포교에게 “남편은 귀가 어둡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죽산 도호부로 끌려간 타대오와 우르시치나 부부는 즉시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가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고는 “빨리 죽기만을 바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타대오와 우르시치나 부부는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결국 교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종 조치명 타대오는 세속의 협박과 유혹의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관헌들의 협박과 회유 앞에서 그가 지킨 침묵은 장애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 머무르는 내적 침묵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흔들리던 배 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그 평화가, 고문과 죽음 앞에 선 하느님의 종의 영혼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종 조치명 타대오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평화가 내려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종 조치명 타대오
저희가 세속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적 침묵과 평화를 살게 하소서.

‘성지순례하는 남자’의 수원교구 성지순례
‘어농 성지’편 지금 확인하세요!



어농 성지

① 순교의 빛이 머무는 땅 - 고난의 밀사
② 청년을 깨우는 영성의 울림

| 글·사진 |
이선규 대건 안드레아

순례자가 어농 성지에 도착한 주일 아침, 마침 찬양미사를 준비하고 있던 ‘안다미로 찬양팀’의 연습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 소리에 이곳이 ‘청소년 성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울림을 통해 청년 순교복자들의 뜨거웠던 신앙이 2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현재 청소년들의 밝은 미소와 찬양 속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농 성지의 주일미사는 매주 “셈페르쿰, 셀라, 안다미로, 마라나타 찬양팀”의 봉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농 성지는 2007년 청소년 성지로 지정되어 매년 청소년을 위한 여름학교와 복사단 캠프, 그리고 찬양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농 성지에서는 20~40대에 이르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순교한 복자들을 현양하고 있습니다. 청년 순교복자들의 순교정신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영적 영양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청년 봉사자들이 부족하여 여름 캠프는 성지측의 대관으로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2027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청년 봉사자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어농 성지에는 성지만의 특별한 십자고상이 제단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고상은 유봉옥 제노베파 작가의 작품으로 소나무 원목 하나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신자석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재단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신 예수님. 그 수난의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마치 은은한 미소를 짓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 예수님의 표정이 제각기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지도 궁금해졌습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얻고, 청년 순교자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고 돌아가는 청소년들이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또 하나의 작은 순교자이자 신앙의 증인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빌어봅니다.

제30차 성경잔치

| 주 제 |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 중심 성경 | 복음서

① 지구 및 본당 차원 성경잔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1) 성경경시 대회
- (2) 성경암송 대회
- (3) 온라인 성경 이어쓰기
- (4) 말씀 체험장

※ 이 외에도 지구 및 본당 차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활용 프로그램 자료 파일

수원교구 사목 연구소-사목자료·성경사목 사이트
<https://pastor.casuwon.or.kr/data/bible>

③ 온라인 성경 이어쓰기

공문 (천수교 2026-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세상 사이버성경학교

New



키워드로 읽는 성경

과정 첫걸음/일반(수료 시: 25,000포인트 지급)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https://cyberbible.casuwon.or.kr>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신청



활용 팁!



총대리 문희중(요한 세례자) 주교님 영명축일

6월 24일은 총대리 문희중(요한 세례자) 주교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주교님께서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도록 교구민들의 정성 어린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교를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문희중(요한 세례자) 주교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우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맡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금주에 기억할 사제



이덕환(야고보) 신부
2012년 6월 26일 선종

요당리 성지 "아름다운 성화시리즈 3" "열정(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

일정 7.11(토)
내용 10:00~11:00 음악 피정
11:00~12:30 강의(전담 신부)
12:30~14:30 점심
14:30~16:00 미사
비용 1인 3만 원
문의 031-353-9725(문자)
요당리 성지

교정사목위원회 월례기도모임

일시 6.22(월) 10:00~16:00
(점심식사 개별)
장소 교정사목위원회 밝음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9번길 38)
대상 참여를 희망하시는분
준비 목주, 미사도구
문의 031-446-7909
사회복음화국 교정사목위원회

성거산·남방재 성지순례

일정 7.24(금) 08:00~19:00
출발 수원화성순교 성지
인원 선착순 80명
회비 4만 원(점심, 간식포함)
지도 김화태 신부
순례중 고해성사 주심
참고 1일 여행자보험 개별 가입
실비보험 가입자 제외
주관 수원화성순교 성지
마감 6월말까지
문의 031-246-88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시복(101주년) 기념미사

일시 7.5(주일) 11:30
장소 김대건 신부님 묘역 앞 광장
내용 야외 미사(미사 후 유해친구식)
문의 031-674-1256 미리내 성지

미사·피정

성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피정

일정 149차 7.17~25
150차 8.14~22
장소 화순수도원
문의 061-373-3001
성 베네딕도회 화순수도원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영성피정

일시 7.2(목) 13:00~16: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대상 모든 신자
강의 최규화 신부(미사)
문의 010-4178-8542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일정 7.3(금)~5(주일)
효소단식
일정 7.9(목)~12(주일), 8.4(화)~7(금)
성경완독
일정 7.24(금)~8.1(토), 8.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정 1박 2일 6.27~28, 8.29~30
 3박 4일 7.2~5, 7.30~8.2
 4박 5일 7.22~26
 8박 9일 7.10~18, 8.9~17
 40일 10.1~11.9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33일 봉헌기도 목상회

일시 7.7~8.11 매주 화요일 09:30~12:30
 장소 단내성가정 성지
 강사 7.7 이안나 수녀, 7.14 신동규 신부
 7.21 조용준 신부, 7.28 정윤수 신부
 8.4 김경희 수녀, 8.11 최미경 수녀
 회비 3만 원
 참고 매주 미사봉헌
 문의 031-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향심기도 소개 피정

일정 7.14(화), 18(토), 8.11(화), 22(토)
 그 외 날짜 소그룹(10명 내) 피정 가능
 시간 10:00~15:00(점심 제공)
 장소 수지성모교육원 홀
 비용 5만 원
 강사 차 알벨또 수녀
 문의 010-2920-2746 수지성모교육원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일정 7.17(금)~20(월), 7.31(금)~8.3(월)
 8.14(금)~17(월), 9.18(금)~21(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내용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비용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도미니코수도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7월
 일정 7.18~20, 24~27, 29~31
 8월
 일정 8.1~4, 8~10, 14~16, 20~23, 28~30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일정 7.1~4, 9.1~4
 내용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섬과 함께 제주의 섬 여행(우도)과
 올레길, 성지순례
 문의 02-773-1455, 064-796-4182

고초골 공소 주일미사 봉헌

일시 매주일 19:00
 장소 고초골 피정의 집
 문의 031-337-0470 고초골 피정의 집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일정 8.6(목)~9(주일)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왜관 수도원 내)
 비용 42만 원(1인 1실)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 010-4731-2468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 2일 치유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4:00~주일 14:00
 장소 초정성령회관
 강사 윤창호 신부, 이상기, 한영임
 고영민 회장
 회비 2만 원(청소년 무료)
 참고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청주교구 성령새신봉사회

교육·모집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시 시대의 삶과 신앙"

일시 7.5(주일) 14:00
 장소 수원교구청 2층 대강당
 출연 김도현 신부(저자)
 신상훈 생활성가 가수(공연)
 비용 무료
 신청 선착순 150명
 주최 수원교구 홍보국
 주관 생활성사
 문의 02-945-5985 생활성서사
 031-242-8081 수원교구 홍보국

수원가톨릭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모집

연습 안내
 일시 매 주일 14:00~17:00
 장소 수원교구 제2대리구청(의왕시 오전동)
모집 안내
 대상 수원교구 신자
 첫영성체 마친 초등4학년~대학생
 신청 jullie79@gmail.com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3682-5027
 수원가톨릭청소년교향악단

가르멜산에 복되신 동정마리아축일

셀회원 봉헌서약 갱신식

일시 7.16(수) 12:30~16:30
 장소 권선동 성당 2층 대성당
 미사 문희종 주교, 교구 사제단
 문의 031-243-6171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예수회센터 여름특강

일정 7월 개강, 각6주
 내용 루카와 사도행전,
 나자렛에서 로마까지
 -자크 마리탱의 그리스도교 인간학
 -예수의 윤리1: 사랑하며 사는 삶의 경로
 -현존 영성수련(7주 or 8주)
 참고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예수회센터

제28회 가톨릭평화방송 영어캠프

내용 캐나다:Toronto명문대학 영어캠프
 미동부, MIT+IVY리그탐방
 미국:UCLA 영어캠프, 미서부 투어
 및 명문대학 탐방
 영국:Oxford대학 영어캠프
 서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체코)
 참고 cpbccamp.com
 문의 02-734-0999 가톨릭평화방송

수원가톨릭뮤지컬극단앗숨도미네 단원 모집

연습 안내
 일시 매주 화요일 21:00
 장소 연습실(성남시 분당구)
모집 안내
 분야 배우, 영상, 오퍼레이팅, 홍보 등
 (60세 이하 교우, 전공 무관)
 신청 이메일 musical@adsumdomine.org
 문자(010-9935-7870)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9935-7870(문자)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안내
 일시 매주 수요일 18:00~20:30
 토요일 10:00~12:30
 장소 제2대리구청(의왕시)
모집 안내
 대상 수원교구 신자. 초등2~6학년
 신청 9953021@gmail.com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문의 010-4686-8021

향심기도, 렉시오디비나 강의와 기도

날짜 9.1부터(화,목) 5회
 화·목요일 반 택일
 시간 14:00~16:00
 장소 수지성모교육원 홀
 회비 5만 원(5회)
 강사 차 알벨또 수녀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도회)
 문의 010-2920-2746 수지성모교육원

원어 신약 기초반(헬라어: zoom)

일정 7월부터 12개월
 매주 화요일 20:00~22:00
 회비 30만 원x4회(총120만 원)
 문의 010-4598-6912 작은형제회

기타

국내 167곳

제주, 베트남, 마카오, 일본 성지순례

일정 국내167곳, 제주. 35만 원
 나가사키 3박 4일. 123만 원
 베트남 3박 5일. 120만 원
 마카오 3박 5일. 120만 원
 아키타 3박 4일. 120만 원
 북해도 3박 4일. 120만 원
 문의 010-4239-1929 마르코투어

미카엘 성지순례 모집

일정 7.20, 8.11, 9.7 제주 순례 3일
 9.2, 10.2, 11.19 홍콩 마카오 4일
 9.1, 10.1, 11.18 다낭 순례 5일
 9.2, 10.2, 11.19 나가사키 4일
 10.6 그리스 튀르키예 12일
 11.23 성모님 발현지3국 12일
 참고 제주도 6명부터 출발
 문의 010-8650-9690 미카엘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일정 8.12 김대건·최양업 신부님과
 안중근 의사 발차취 5일
 (하얼빈, 장춘, 단둥, 차쿠, 뤼순, 대련)
 9.24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추석 연휴)
 10.12 발칸3국 및 메주고리에 10일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수원교구 디딤길 도보성지순례

일정 7~8월은 여름휴서기 휴식
 9.5(토) 양근 성지~강하 공소
 (피정의 집)
 참고 cafe.naver.com//didimgil
 문의 010-5953-1702(문자) 디딤길

산티아고 순례길 44일

일시 9.17(목)
 내용 루르드 3박, 파티마 2박
 산티아고 도보 순례 800km
 비용 599만 원(+2500유로)
 참고 catravel.co.kr
 문의 070-4086-0207 가톨릭트래블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내용 10.2 다낭 성모발현지 순례 5일
 10.14 유럽4국 성모발현지 12일
 10.19 스페인남부, 포르투갈 12일
 10.21 메주고리에 순례 11일
 10.28 발칸, 메주고리에 11일
 11.9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 12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씨피여행사 성지순례

일정 10.11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13일
 10.26 이탈리아 일주 순례 11일
 문의 010-3837-6434 씨피여행사
 1644-5925 하나투어공식인증센터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일정 10.14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운젠 히라도 나가사키 포함
 10.23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12일
 참고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채용·봉사자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분당구미동 본당 반주자 / 채용 시

성루카노인전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야비
 인원 남·녀 0명
 서류 이력서, 자격증 사본(요양보호사)
 방법 이메일(stluke@casuwon.or.kr)
 팩스(031-236-7715)
 문의 031-236-7711
 성루카노인전문요양센터

하상출판사 직원 채용

분야 경영지원팀 제작파트(인쇄기계 운용)
 마감 채용 시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문의 031-248-1812 하상출판사

성소모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일시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미리내 수도회 관항리 본원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내용 수도자의 삶 안에서 성모성심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봉헌하고자
 하는 성소자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10-5195-3217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제48회

한국천주교회 창립 기념행사

- | 일 시 6.24(수) 11:00~12:30
- | 장 소 천진암 성지
- | 내 용 창립 제247주년 기념 경축 미사
- | 주 례 이용훈 주교, 교황대사 및 주교단
- | 특 전 참석자 전원에게 전대사 부여
- | 문 의 031-764-5953 천진암 성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권 특수 도덕신학

저자 | 칼 H. 페슈케

금액 | 5만3천 원

문의 | 02-740-9718 가톨릭대학교출판부



이 책은 모든 계명과 율법의 완성인 덕스러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성에 비추어 확보된 도덕 기준들을 한 개인과 공동체의 고유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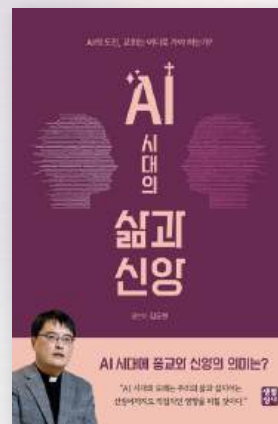
AI 시대의 삶과 신앙

AI의 도전,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저자 | 김도현

금액 | 1만5천 원

문의 | 02-945-5985 생활성서



저자는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 교회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과학만능주의의 무조건적인 추종이 가져올 유물론적 관점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AI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져야 하

며 이를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교구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 | 일시 | 6.25(목) 10:30
10:30~12:00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12:00~13:00 점심 식사
- | 장소 | 정자동 주교좌성당 3층 대성당
- | 주례 | 교구장 대리 박진상 주교
- | 참고 |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치기 바랍니다.
- | 문의 | 031-417-5322 사회복음화국 민족화해위원회

